

고은 불교 대하 소설



물을 잘 포착하는 힘이 요술인양 생겨 있었다.

"불쌍하다" 라는 그녀의 한숨섞인 낮은 말 한 마디는 반드시 그런 소리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에 대한 어떤 아득한 회한이기도 한 것인가. 그것 이상

의 것이라면 천상 도라천의 두 남녀 천신까지도, 아니 온 세상의 중생들이나 나한 보살 부처들까지도 아울러 그녀의 경계없는 연민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른다.

"불쌍한 것 까리의 말 한 마디가 진언(眞言)이... 암 진언이구말구."

그녀의 입안에 숨결처럼 들어있는 열불선의 부처 이름 따위가 들어있으니마나 차별이 없게 익숙한 것이어서 그 열불선의 힘이 아닐로 실로 불가사의한 것으로 그녀의 환경이나 그녀의 섬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열불선의 힘이 문득 지나가던 다급한 달구지가 멈춰선 것처럼 멈춰서 괴괴한 나머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

그림자 속에 다른 일체의 그림자가 비쳐 오는 것처럼 무연히 서로 그 영롱한 빛들의 무수한 것이 교차되고 반영되는 그 중중우진으로서의 다량없는 사사무애의 원용조차도 중생 문화의 세계 없이 어찌 말할 수 있었는가.

나 좋은 일이야' 라고 어느 때와 달리 소식을 기쁘게 하였다.

아침 예불이 죽비소리에 맞추어 불상 없는 수미산의 빈 곳에 큰절을 아홉차례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바로 1시간의 선정에 드는 것이었다.

어린이의 바다

우녀는 그 밤중 가장 밝은 눈을 뜨지 않고 감은채 그 감은 눈으로 바로 화염의 법계 즉 세계를 볼 수 있는 더 없는 축복 가운데서 벗어나 있었다.

한껏 연민의 정서와 이런 우주적인 자기확대의 경지는 왜 그러지도 자연스러운 것인가. 마치 괴리 한 마리가 짐승의 축축한 배설물이 말라버리자 떠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녀는 혼자 화염법계의 심현문(十寶門)의 하인인 인타랑경계문(因陀羅網境界門)에 들어서서 그 보배구슬들

그런데 아침 위쪽 선방 밖에서 대혜와 효영들이 두란거리는 것이었다.

우식행자와 만우행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오전 정전에 앞서 섬의 여기저기를 걷는 경행(經行)으로 몸을 풀고 돌아온 우녀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자 그녀는 대를 "우리 머리 위쪽에 올라있었는데 뭘 걱정입니까" 라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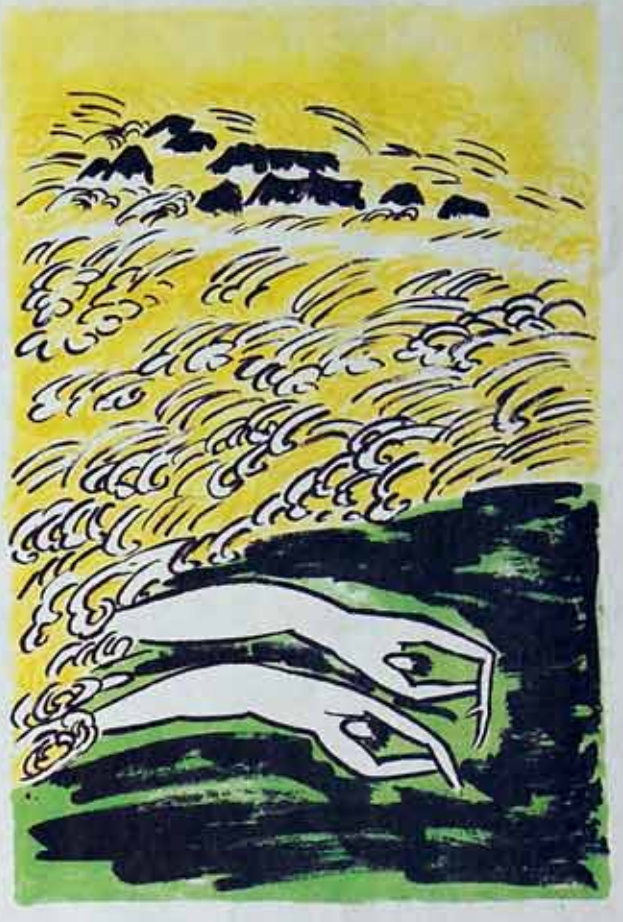
머리 위는 어디인가. 하늘이 아닌가. 아니었다. 머리 위쪽은 무욕도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효영이 그것을 알아서했다.

"가뽏시다. 산 위의 토굴자리에 있는 자..."

무욕도의 대중이 지난 시절 웅성웅성 많이 불어왔을 때 산꼭대기에 걸반은 땅 밑, 절반은 땅 위가 되는 용명정진의 요사채를 열렁뚱뚱 지어놓고 그곳에서 무전 파현들이 서로 이갈새라 공부를 겨룬 적도 있고 만화의 남작이 '에라 낯잡이나 싹트 자고나면 부처가 되든 통막대기가 되든... 무어가 되고 말겠지' 하고 별명 누워 한잠 자고 내려오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행자들이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멀리 바다 건너 동쪽 바닷가의 산기슭에 있는 마애불에의 하염없는 그리움을 보내기도 하지 않았던가.

효영과 명오가 그곳으로 올라가 어김없이 두 어린 행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누구



변해서 사라지는 것 말고 어떤 것이 진리이던가 우녀는 화염법계 보배구슬들의 찬란한 교호를 보고 있었다

천 상 도라천의 합두 그리고 불이 와의 몇마디 주고 받은 말은 정녕 헛된 수작인가? 헛되다면 어린 시절의 어느 밤에 꿈속의 일을 강그리 잊어버려서 그때 그런 꿈을 꾸는 적도 없는 것 이상으로 헛된 수작인가?

그동안 우녀는 이것도 저것도 무뎠 헛되고 가르쳤다.

아니, 헛된 것, 변하는 것, 변해서 사라지는 것 말고 어떤 것이 진리이던가?

무욕도의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이 헛된 바를 일깨워주고 무욕도의 사람이 아직까지 그날 머물러 있었는지 그 머물러 있는 그것대로 헛된 바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녀가 하늘의 공간과 지상의 공간에 조종도 차별없이 지난 날의 사람과 몇마디 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헛되다 할지라도 그 헛된 것을 헛사리 물리쳐 버릴 수 없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운회야말로 공부라고 말한 것도 문화의 헛됨을 뒤집어서 그 헛된 세상을 깨닫는 일을 뜻한다. 그렇다면 합두들과의 몇마디 말도 구름 위의 이웃이라는 허허로운 공간의 일기는 하나 밤꿈 지나쳐 온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그녀의 얼굴을 쉽게 하는 것이었다.

파도소리가 유난스러 목 촉감을 내어 마치 다른 소리들을 다 제압하려는듯이 들리는 밤이었다. 진작 잠든 소식행자는 그 고른 숯불조차 들려주지 못하게 파도소리에 파멸에 있었다.

우녀는 그런 잠든 처녀를 어둠 속에서 지극히 연민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일 까닭이 없으나 우녀의 눈은 마치 늙은 올빼미인양 어둠 속의 사

는 것은 부처의 이름이 아니라 몇마디 두백의 말이었다.

말이 끊어진 경계로부터 다시 말의 경계로 돌아왔다. 아니 말이 끊어진 경계 자체가 말의 경계로 돌아오기 위한 공부였던가.

그녀는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불쌍한 것들이 이 사바세계에서는 서로 탁마라는 도반이더니 정작 3천에 올라가 그 보리빛 구름 속에서 음악의 애곡이 생

의 빛이 서로서로 비추는 그 찬란한 교호(交呼)의 서로 들고 서로 나오는 세계를 보고 있음이 아니던가.

도라천 합두와 불이가 살고 있는 곳이 곧 제석천의 주재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석가모니부처님의 생도 마야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곳의 오랜 천신 생활을 하고 있거니와 바로 그곳의 도반과의 몇마디 말이 우녀로 하여금 오늘날의 드넓은 세계에의 시어로 발전한 것이 플립

계 그 애곡의 씨를 남게 되나... 문화란 공부인가 하면 또한 공부를 뚱뚱 저버리는 노릇이기도 하지, 찌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하나의 소천세계이든 3천대전세계이든 아니 그것의 무한대로 펼쳐나가는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이든 그것의 극소와 극대와 상관없이 그런 세계가 성립되는 것이 바로 이 문화 때문이다.

그런 세계를 텅 빈 상태로 두어 마침내 그 세계의 소멸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름아닌 중생생들의 세세생명이 마치 제석천의 공전을 장식하는 보석그늘인 양 이어져 서로가 서로를 닮아들이기 때문이다.

제석천공의 보석그늘이라니!

바로 그곳의 그들은 수많은 각각의 미세한 그늘크마다 보배구슬이 불어서 각각의 코에 달려 그 구슬이 다른 일체의 구슬의 그림자들을 비추고 그 하나하나의

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이라도 담장 이 사바세계 삼부주의 인연을 홀리에 버의 날알을 흩어내듯 탈탈 털고 그 천상의 세계로 올라갈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러기커녕 무욕도의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낸 뒤에나 아주 천천히 저문 날의 소처럼 이곳을 떠나는지 말인지 할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조차도 망상으로 알아 바로 물어온 나뉘처럼 땅 속에서 씹어 버릴 노릇이었다.

다음날 새벽 예불시간에 소식이 깨어나자 우녀 자신도 딱 깨어난 것처럼 깔고 있던 것들을 치우기 시작하였다.

"잘 잤지" 하고 우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한 걸음 뒤늦은 소식행자가 어쩔줄 모으며 "네에... 보살님께서는 잘 주무셨는지요"라고 말소리를 떨며 인사를 하였다. "소식행자와 함께 자고 깨는 일이 얼마

하나 그 행자들을 꾸짖지 않았다.

"배 고프면... 밥 먹어야지" 라는 말이 그 행자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난 뒤 다시 한번 두 행자가 어디 갔는지 몰랐다.

그때 효영들이 또 산꼭대기에 가보려 했는데 우녀가 흐린 날의 갈매기 몇 마리를 쳐다보았다. 이 바다 위에서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산 높은 갈매기들이었던 것 같다. 바로 그 갈매기 몇마리 중의 두 마리가 그만 대낮에 날아오를 힘이 없었던지 파도 위에 내려와서는 그 길로 파도머리에 파묻혀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우식행자... 만우행자... 이승을 하직한 것 같아."

이 말이 우녀의 입에서 그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스로 흘러나왔다.

인담이 그런 우녀에게 정신을 가다듬게 하려는 듯이 큰 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소?"

우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혼자 한 마디 내뱉었다.

"무엇하려고 그렇게 급한 걸 간다? 한 해 지나서나 가도 될 일인데..."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후 운력(運力)시간에 섬의 동남쪽 바닷가의 아주 좁다란 모래밭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 행자의 시신이 서로 엉겨붙어 누워 있었다. 시신의 상반신들은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

인담이 대해 효영 명오들과 함께 그 시신들의 때를 복측 선착장에서 물이와 거기에 실고 바다 북편으로 나아갔다.

말하자면 굴이 장황한 정례의식을 치르는 것을 생략해버리는 인담의 결단이 그렇게 바다속에 던져서 고기들에게 먹거리로 되는 마지막 보시(布施) 공덕을 그 어린 영가들에게 안겨주려는 뜻이었다.

복소리도 없었다. 사람들의 나무야미따

플을 부르는 소리도 없었다. 소리는 오로지 파도소리였고 그 파도소리의 겨우 몇 개가 때때를 잠지막한 헛바다으로 얇은 소리일 따름이었다.

인담도 누구도 입을 깨면듯이 한마디 말도 있을 수 없었다. 오직 명오만이 눈물 한방울을 두 눈에 매달고 있다가 신부님스러운 바닷바람 한 자락이 그것을 나귀 채가버렸으므로 눈물자국 따위도 없었다.

반나절이면 싹릿길을 거의 다 갔으리라. 가을은 노인의 걸음으로도.

그렇게 반나절을 때리는 아주 천천히 바다 안으로 나아갔다.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에 그들이 살고 있는 무욕도가 아주 작고 불품없는 섬으로 보일만한 거리가 이르렀다. 바로 그곳에서 두 시신은 물속에 밀어넣어졌다.

그림·조향숙

우식·만우행자 시신을 바다에 던져 마지막 보시공덕을...

불교인들의 민심,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고독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이차임결혼연구원

이차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차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확실한 에너지 보충! **천원옥산가 天!**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최효로운 분자를 확실하게 모든 병을 호정시킵니다.

★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한 직장인, 수험생에게
★ 4.50대 주부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무조건 사용해보십시오. 함으로 잘 들으십시오.

천원옥산가 天! 천원옥산가 天!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브랜딩 제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수편번)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차임결혼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합성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훌륭한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합성제를 사용한 일본 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오!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02)467-6044-5 FAX (02)467-6045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상),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영능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